

자살충동과 관련된 예측변인들의 구성요인의 영향력

Influence of Constructive Factors of Predictive Variable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김지훈*, 김경호**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Jihoon Kim(too2002oot@naver.com)*, Kyoungho Kim(khk@gntech.ac.kr)**

요약

본 연구는 12차년도(2017년) 한국복지패널에 참여한 11,755명을 대상으로 자살충동에 관련된 예측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자살충동에 관련된 예측변인들의 구성요인의 영향력을 통합적인 연구틀에서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SPSS 23.0 버전을 적용하여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의 구성요인 간 다중공선성 진단 후,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의 구성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로지스틱 회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가부장적인 역할이 증가할수록, 언어폭력이 증가할수록, 외로움을 더 느낄수록, 사람들이 자신을 차갑게 대할수록, 음주 후 블랙아웃(black-out)이 증가할수록 자살충동의 승산비가 증가하는 반면, 삶의 사다리 점수가 증가할수록 자살충동의 승산비가 감소하였다. 이를 근거로 자살충동을 축소·예방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고, 이 연구의 제한점, 그리고 추후 연구에서 고려할 점을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자살충동 | 예측변인 | 구성요인 | 로지스틱 회귀분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onstructive factors of predictive variable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in contrast to previous studies analyzing the influence of predictive variable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The 11,755 subjects were participated in the 12th(2017) KoWePS. After the diagnosis of multicollinearity among constructive factors of predictive variable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and are analyzed with the statistical program Spss 23.0 as a calling logistic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more patriarchal gender role increase, the more language violence occur, the more feel loneliness, the more people treat me cold, the more drinking' black-out occur, the odds ratio of suicidal ideation increases, while the more ladder score of life increase, the odds ratio of suicidal ideation decreases. Based on this result, we suggests social welfare implications to reduce or prevent suicidal ideation,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also presented.

■ keyword : | Suicidal Ideation | Predictive Variables | Constructive Factors | Logistic Regression |

* 본 논문은 2017년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회계 연구비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8년 11월 01일

심사완료일 : 2018년 12월 04일

수정일자 : 2018년 11월 26일

교신저자 : 김경호, e-mail : khk@gntech.ac.kr

I. 서론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자살자 수가 1만 2463명으로 2016년 1만 3092명보다 629명(-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11년 31.7명을 정점으로 2015년 26.5명, 2016년 25.6명, 2017년 24.3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2017년 기준 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자살률” 비교 시 한국은 23.0명으로 OECD 평균 11.9명에 비해 여전히 두 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2017년 기준 자살은 10대-30대의 사망원인 순위 1위, 40대-50대의 사망원인 순위 2위이고, 남성의 자살률은 34.9명으로 여성의 자살률 13.8명보다 2.5배 높았다. 연령대별로 남성의 자살률은 10대 5.8명, 20대 20.8명, 30대 32.4명, 40대 38.7명, 50대-60대 47.7명, 70대 81.7명, 80대 이상 138.4명으로, 여성의 자살률은 10대 3.5명, 20대 11.4명, 30대 16.2명, 40대 16.8명, 50대 13.7명, 60대 13.6명, 70대 23.4명, 80대 이상 38.6명으로 나타나 남성 및 여성의 자살률 모두 고령화될수록 증가하였다.

자살은 본인은 물론 남겨진 가족에게 의료비 등 각종 사회·경제적 비용을 야기하고, 현재 및 잠재적 경제활동인구의 손실로 이어진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2018년 보건복지부에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하고, 지난 5년간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를 DB화하여 지역별 자살특성에 대응한 전략적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1]”을 발표하는 등 자살예방 대책수립과 자살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자살은 개인 및 사회적 변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자살원인의 실체를 명확하게 예측하고 예방하는 노력은 쉽지 않다[2].

자살의 연구는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는데, 통계학적 관점에서 자살과 관련된 실증연구는 직접적인 관찰과 검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충동, 자살계획 및 자살시도를 대리변수를 활용하여 진행되어 왔다. 자살충동이란 자살을 생각하기 시작하여 치밀하게 계획하고 치명적이지 않는 자살시도를 거쳐 자신의 삶을 종결하는 일련의 집합적 연속체이다[3].

최근의 자살과 관련된 실증연구들의 예측변인을 살펴보면, 먼저 우울[4], 우울·스트레스[5], 우울·학대경험[6], 학대·폭력[7-12], 생활만족도[13], 웰빙[14], 삶의 사다리[15], 사회적 유대감·정서 조절[16], 사회적 차별[17], 사회적 고립[18], 외로움[19-22], 사회적 파편화·사회경제적 박탈[23], 사회적 자본[24], 결혼상태·사회경제적 불평등[25], 상실·사별경험[26], 장애상태[27], 성역할[28-30], 알코올중독[31][32], 알코올·경기침체[33]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자살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예측변인들의 구성요인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살과 관련된 주요 예측변인 간의 관계를 척도의 평균 값이나 합산값을 투입하여 그들 간의 영향력을 분석해 왔다. 이로 인해 예측변인을 구성하는 개별요인에 대한 영향력이 척도 값에 가려져 과소평가 되거나 혹은 과대평가되어 자살과 관련된 예측변인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기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의 의도적 종결과 관련된 중차대한 자살인 경우 자살과 관련된 예측변인들의 구성요인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살과 관련된 예측변인들의 어떠한 구성요인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에 주목하여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자살충동과 관련된 주요 예측변인들의 구성요인의 영향력을 통합적인 연구들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예측변인으로 성역할, 폭력행위, 외로움, 알코올남용 및 삶의 사다리 등의 구성요인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로지스틱 회귀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살충동

자살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고[34], 자살충동은 더 이상 희망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해 ‘죽고 싶다’라고 대응하는 심리적 자해행위이다[35]. 자살충동은 자살계획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고작용인 반면,

자살시도는 자살충동이나 자살계획이 자살행위로 구체화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자살충동이나 자살계획은 자살시도나 자살행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자살충동이나 자살계획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자살시도나 자살행위로의 이행에 대한 위험성을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3].

자살충동이나 자살행동의 예측변인으로 충동성이나 공격적 성향[36],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37], 우울증과 절망의 경험을 포함하여, 사회적 소속감 부족 등의 사소통의 어려움[38], 부정적인 삶의 사건[39] 등을 들 수 있다.

충동성은 자살충동에서 자살시도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자살행동의 주요 위험요소로 이해되면서[40] 자살을 충동적 행동으로 순간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41]. 그러나 이러한 보고는 자살충동을 가진 개인 집단 내에서 충동성의 수준은 이전에 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사람보다 이전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에서 더 높고, 자살충동을 가진 사람과 자살을 시도한 사람 간의 충동성의 차이는 없다고 보고하고 있는 Klonsky and May[40]의 연구에서 모순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상반된 보고는 열악한 기획, 결과를 고려하기 전에 조기대응, 감각추구, 위험감수, 반응에 대한 무능, 즉각적인 지연 보상의 선호[42], 지연 할인[43] 등의 다양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지만, 충동성이 공격적 성격과 독립적으로 자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지는 검증이 필요하다[44].

정신적 고통은 자살충동이나 자살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인간이 사랑하고, 통제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수치심, 죄책감 및 굴욕감을 회피하고, 안전함을 느끼는 등 기본 욕구가 좌절되거나 위축되었을 때 발생하는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반영한다[37]. 또한 정신적 고통은 죄책감, 수치심, 절망, 불명예, 격노 및 패배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로 발현된다. 일부 경험적 연구들은 우울증 환자들이 심리적 고통[45]을 호소하고, 이러한 심리적 고통은 자살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46]. Troister et al.,[15]은 정신과와 밀접하게 관련된 다른 지표, 즉 심리적 삶의 질은 우울, 절망, 삶의 질의 다른

영역을 통제된 후[47] 정신과 외래환자들의 자살성(suicidality)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외로움이나 조현증 성향의 주관적인 정서를 포함하며, 일부 학자는 사회적 소속감의 부재와 관련된 이러한 변인들[48]과 자살충동 및 자살행동 간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49]. 언어나 행동을 통해 자신의 주변 환경과의 의사소통 능력은 개인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현재 상황으로 인해 야기되는 고통을 덜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50]. Horesh, Zalsman and Apter[51]는 의사소통의 부재는 자살충동, 자살시도 및 자살태도와 관련성을 보고하고, Barnes, Ikeda and Kresnow[52]는 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개인에 비해 심각한 자살시도의 생존자는 자살시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 문제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극소수의 친구나 전문가와 상담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2. 선행연구 고찰

2.1 자살충동과 성역할

자살과 관련된 국제통계는 남성과 여성의 자살율은 고소득 국가에서 3.5 : 1이며,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서는 1.6 : 1이라는 성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53].

이러한 결과는 사회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의 역할을 어떻게 받아들여하는가에 따라 계발되는 남성성이나 여성성이라는 성정체성과 관련된다[54]. 남성지배의 관점에서 볼 때 금욕극기주의(stoicism), 무적, 강함, 독립심, 가족부양 능력, 추진력, 수완가 태도, 성공 등과 관련된 남성성[30]은 여러 측면에서 자신의 삶에 긍정적이고 적응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자살 위험을 증가시키는 행동과 인지에 기여하기도 한다[28].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삶의 사건, 즉 이혼·별거 및 직무상 문제[55]나 가정의 역할상실[56] 등과 같은 생활사건에 직면하게 되면, 높은 수준의 금욕극기주의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려하게 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위축되어 공격적으로 반응하거나[28] 우울한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마약과 술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28] 결국 자살을 더 많이 선택한다고 한다[30].

Coleman[29]의 연구는 2,431명의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전통적 남성성과 자살충동 간의 관계에서 주효과와

스트레스의 상호작용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다른 위험 요소를 통제할 때 전통적 남성성과 자살충동 간의 주효과는 미흡하지만 유의하게 나타나 우울증이 이어 두 번째로 자살충동과 관련되었고, 전통적 남성성과 자살충동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상호작용효과 역시 유의하게 나타나 자살충동에 대한 전통적 남성성이 자살충동의 예측요인임을 밝혀냈다.

Pirkis et al.[30]의 연구는 호주 남성건강중단연구 13,884명을 대상으로 지배적인 남성성 규범과 자살충동 간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자살생각과 관련된 다른 예측요인을 통제할 때, 지배적인 남성성 규범이 강할수록 자살생각이 1.3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자살충동과 폭력행위

파트너폭력(IPV)은 대학생들의 자살충동의 핵심 위험 요소로 작용하면서 파트너폭력 피해자 중 신체 학대의 경우 37%가, 정서적 학대의 경우 90%가 자살충동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10]. 파트너폭력을 경험하게 된 남성과 여성은 일반인구 3.7%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 17.6%~68.7%로 자살충동을 경험한다고 한다[8].

Alhusen et al., [11]은 2009년 2월~2010년 3월까지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산전관리를 받던 임신 24~28주의 저소득 임신부 166명을 대상으로 임신기간 동안의 파트너폭력과 자살충동 간의 관계를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자살충동을 가진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 중 22.89 %이었고, 산전 우울증상은 산전의 자살충동 위험을 17.04배(OR=17.04, 95% CI 2.10- 38.27) 증가시키고, 파트너폭력 경험은 산전의 자살충동 위험을 9.37배(OR=9.37, 95% CI 3.41-25.75) 증가시켰다.

특히, 부부폭력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자녀 모두에게 살인이나 자살 등 신체적 피해와 무력감, 자기결정권 상실, 공포심, 혼란 등 심리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고립 등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57] 자녀에게 폭력의 대물림현상으로 나타나[58] 가족체계의 원인이 된다.

Dong et al.,[12]는 시카고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3,159명의 중국노인을 대상으로 연령, 성별, 교육, 수입, 의료합병증, 우울 증상, 사회적 지지를 통제한 후, 노인학대

가 지난 2주간 자살충동의 위험을 2.46배 증가시켰고(OR 2.46, 95% CI 1.52-4.01), 지난 한 해 동안 자살충동 위험 역시 2.46배 증가시켰다(OR 2.46, 95% CI 1.62 - 3.73). 또한 젠더 차이와 관련하여, 모든 교란 요인을 통제한 후에 남성노인이 아니라 여성노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자살충동과 외로움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통합은 전 생애에 걸쳐 정서적 충족감(emotional fulfillment)과 발달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59].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소속욕구(need to belong)를 전제로 하며[60], 문화적 차이를 초월하여[61], 대부분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과 성격을 규정하는 관계의 매트릭스에 살고 있다[62]. 하지만 개인주의 서구국가에서 4명 중 1명꼴로 정기적으로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63].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접촉의 결핍을 의미하며, 외로움은 사회적 접촉, 소속감의 부재로 경험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주관적인 것 혹은 고립감으로 정의되며[64], 개개인의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와 실제적 사회적 관계 간의 불일치[65]이거나 사회적 필요와 환경에서의 이용가능성 간의 불일치[66]를 인식할 때 발생하는 불쾌한 감정을 특징으로 하고, 우울[67]과 자살충동[19-21]과 관련이 있다.

Stravynski and Boyer[19]은 1987년 퀘벡시 건강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외로움, 자살충동 및 준자살행동(parasuicide)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로움과 자살행동의 징후 간의 상관성이 대학생, 노인, 정신질환자 등 하위집단에서 존재하고, 감정 등 주관적이거나 혼자 살거나 친구가 없다는 등 객관적으로 규정된 홀로 살거나 외롭게 산다는 방식과 자살충동 및 준자살행동 간 상당한 상관성이 존재하며, 더욱이 자살충동과 준자살행동 간의 관계는 외로움의 정도에 따라 심화되고, 젠더간의 차이는 미흡하지만 유의미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Pervin and Ferdowshi[22]은 유의표집으로 선발한 11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자살충동과 우울, 외로움, 절망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자살충동과 우울증, 외로움 및 절망감 간의 관계가 정적 상

관으로 나타났고,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우울증, 외로움 및 절망감이 대학생의 자살충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4 자살충동과 알코올남용

알코올남용은 자살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지속적으로 관련되어 왔다. 알코올남용은 통제불능, 충동 및 판단력 저하를 야기하여 자살에 이르게 할 수도 있지만, 자살행동과 관련된 고통을 덜어주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뿐만 아니라 정신병, 기분장애 및 불안장애 등 정신장애 또한 자살행동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음주 패턴과도 상호작용하기도 한다. 자살 위험 증가는 치료되지 않은 알코올남용과 의존성의 결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축, 사회연대감 붕괴 및 사회적 주변화에 의해 예측될 수 있다[32].

2.5 자살충동과 삶의 사다리

Cantril[68]의 삶의 사다리척도(self-anchoring ladder scale)는 현재의 삶의 만족도와 미래의 삶 만족도를 측정하는 두 가지 범주 각각에 대해 그들이 만족한다고 느끼는 수준을 0에서 10까지 선택하도록 하는 11점 리커트 척도이다. 여기에서 (0)은 전혀 삶의 만족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10)은 최상의 삶을 의미한다.

Troister et al., [15]은 심리적 삶의 질은 우울, 절망, 삶의 질의 다른 영역을 통제한 후[47] 정신과의 외래 환자들의 자살성과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빈곤층, 근로빈곤층, 차상위층의 규모와 복지실태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문 조사하여 구축된 한국복지패널 자료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한국복지패널 2017년 조사에 참여한 15,422명 중 “지난 한 해 동안 자살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질문에 응답한 11,755명이다.

2. 측정도구

2.1 자살충동

자살충동은 “귀하께서는 2017년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자살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1=‘예’, 0=‘아니오’로 구성되어 있다.

2.2 성역할

성역할은 2017년 조사일 현재 8가지 질문(여성이 전 일제로 일할 경우 가족생활은 힘들어진다,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아동에게 나쁘다,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하다,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가정의 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렵다,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에 대한 답변으로 5점 Likert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저 그렇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2.3 폭력행위

폭력행위는 2016년 1년간(2016.1.1~2016.12.31) 당신의 배우자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의 3가지 행동(모욕적이고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때리려고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가하였다,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다)에 대한 답변으로 4점 Likert척도(1=전혀 없음, 2=1~2번, 3=3~5번, 4=6번 이상)로 구성되어 있다.

2.4 외로움

외로움은 2017년 조사일 현재 기준으로 “귀하는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의 3가지 느낌(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사

랍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에 대한 답변으로 4점 Likert척도(1=극히 드물다: 일주일에 1일 미만, 2=가끔 있었다: 일주일에 1~2일간, 3=종종 있었다: 일주일에 3~4일간, 4=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에 5일 이상)로 구성되어 있다.

2.5 알코올남용

알코올남용은 2017년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이 5가지 경험을 한 적은 몇 번입니까?의 5가지 경험(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던 적이 얼마나 자주입니까?, 해야 할 일을 술 때문에 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과음을 한 다음날 해장술을 마셔야 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술을 마신 후에 좌절감을 느끼거나 후회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술 마시고 필름이 끊긴 적이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답변으로 5점 Likert척도(1=전혀 없음, 2=몇 달에 한번, 3=한 달에 1~2번, 4=주에 1~2번, 5=거의 매일)로 구성되어 있다.

2.6 삶의 사다리

삶의 사다리 척도는 맨 꼭대기(1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를, 맨 아래(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악의 상태를 나타내는 숫자가 매겨진 사다리를 생각하고, “귀하는 지금 현재의 사다리의 몇 번째 칸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0~10까지 11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3.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인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살충동을 가지게 된 자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혼인상태, 지역구분, 소득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기초통계분석은 주요 변인들에 대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성역할, 폭력행위, 외로움, 알코올남용, 삶의 사다리 등의 예측변인의 구성요인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인으로 자살충동(1=예, 0=아니요)을 이항변인으로 설정하고, 성역할, 폭력행위, 외로움, 알코

올남용, 삶의 사다리 등의 예측변인들의 구성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먼저 조사대상자 11,755명 중 자살충동자는 255명(2.2%)을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		
인구사회학적 변수	조사대상자 (N=11,755)	자살충동자 (A=255)	A/Nh	
성별	남성	5,032(42.8)	97(38.0)	1.9%
	여성	6,723(57.2)	158(62.0)	2.4%
연령대	청년층	961(8.2)	8(3.1)	0.8%
	장년층	1,301(11.1)	15(5.9)	1.2%
	중년층	3,788(32.2)	69(27.1)	1.8%
	노년층	5,705(48.5)	163(63.9)	2.9%
교육수준	무학	979(8.3)	30(11.8)	3.1%
	초등	2,433(20.7)	80(31.4)	3.3%
	중등	1,427(12.1)	37(14.5)	2.6%
	고등	3,236(27.5)	70(27.5)	2.2%
	전문대	1,197(10.2)	16(6.3)	1.3%
	대학교	2,483(21.2)	22(8.6)	0.9%
혼인상태	유배우	7,338(62.4)	126(49.4)	1.7%
	사별	1,913(16.3)	64(25.1)	3.3%
	이혼	655(5.6)	37(14.5)	5.6%
	별거	78(0.7)	4(1.6)	5.1%
지역구분	미혼	1,771(15.0)	24(9.4)	1.4%
	서울	1,710(14.5)	37(14.5)	2.2%
	광역시	3,219(27.4)	78(30.6)	2.4%
	시	4,525(38.5)	98(38.4)	2.2%
	군	1,948(16.6)	37(14.5)	1.9%
소득수준	도농	353(3.0)	5(2.0)	1.4%
	일반	7,939(67.5)	91(35.7)	1.1%
합계	저소득	3,816(32.5)	164(64.3)	4.3%
	합계	11,755	255	2.2%

조사대상자 대비 자살충동자(A)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2.4%)이 남성(1.9%)보다 높게 나타나 남

성보다 여성일수록 자살충동에 더 취약하였고, 연령대로 보면, 청년층(30대 미만)이 0.8%, 장년층(30대)이 1.2%, 중년층(40-50대)이 1.8%, 노년층(60대 이상)이 2.9%로 나타나 대체로 고령화될수록 자살충동에 더 취약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은 무학이 3.1%, 초등학교가 3.3%, 중등학교가 2.6%, 고등학교가 2.2%, 전문대가 1.3%, 대학교이상이 0.9%로 나타나 대체로 저학력자일수록 자살충동에 더 취약하였고, 혼인상태로 보면, 유배우자가 1.7%, 사별이 3.3%, 이혼이 5.6%, 별거가 5.1%, 미혼이 1.4%로 나타나 미혼이나 유배우자보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별거하거나, 이혼한 상태일수록 자살충동에 더 취약하였고, 지역구분은 서울이 2.2%, 광역시가 2.4%, 시가 2.2%, 군이 1.9%, 도농복합군이 1.4%로 나타나 군이나 도농복합군보다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자살충동에 더 취약하였다. 끝으로 소득수준은 저소득 가구가 4.3%, 일반가구가 1.1%로 나타나 일반가구보다 저소득가구일수록 자살충동에 더 취약하였다.

2. 조사대상자에 관련된 주요 예측변인들의 구성요인의 특성

표 2. 자살충동과 관련된 예측변인들의 구성요인의 특성

예측변인	구성요인	조사대상자		자살충동자	
		평균	SD	평균	SD
성역할	①	3.45	0.94	3.50	.87
	②	3.66	0.86	3.75	.81
	③	3.78	0.72	3.71	0.73
	④	2.60	0.98	2.88	1.03
	⑤	3.60	0.77	3.64	0.75
	⑥	2.25	0.90	2.95	1.16
	⑦	2.41	1.05	2.96	1.17
	⑧	1.82	0.73	2.20	0.99
폭력행위	⑨	1.30	0.70	1.94	1.23
	⑩	1.03	0.23	1.15	0.55
	⑪	1.01	0.15	1.08	0.46
외로움	⑫	1.28	0.58	2.20	0.99
	⑬	1.07	0.31	1.45	0.79
	⑭	1.05	0.27	1.40	0.75
	⑮	1.30	0.72	1.66	1.11
알코올남용	⑯	1.10	0.39	1.28	0.74
	⑰	1.05	0.31	1.15	0.60
	⑱	1.15	0.47	1.44	0.88
	⑲	1.15	0.45	1.45	0.86
삶의사다리	⑳	6.12	1.80	3.73	2.12

[표 2]에서 조사대상자 대비 자살충동자의 경우, 먼저 성역할의 구성요인에서는 ①“여성이 전일제로 일할 경우 가족생활은 힘들어진다.” 3.45:3.50, ②“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쁘다.” 3.66:3.75, ③“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하다.” 3.78:3.71, ④“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2.60:2.88, ⑤“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한다.” 3.60:3.64, ⑥“가정의 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2.25:2.95, ⑦“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렵다.” 2.41:2.96, ⑧“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1.82:2.20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보다 자살충동자가 전통적인 성역할을 보다 더 많이 부담스러워 하였다.

둘째, 폭력행위의 구성요인에서는 ⑨“모욕적이고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1.30: 1.94, ⑩“때리려고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가하였다.” 1.03:1.15, ⑪“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1.01:1.08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보다 자살충동자가 폭력행위에 더 많이 노출되었다.

셋째, 외로움의 구성요인에서는 ⑫“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1.28:2.20, ⑬“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1.07:1.45, ⑭“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1.05:1.40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보다 자살충동자가 외로움에 더 많이 취약하였다.

넷째, 알코올남용의 구성요인에서는 ⑮“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던 적이 얼마나 자주입니까?” 1.30:1.66, ⑯“해야 할 일을 술 때문에 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1.10:1.28, ⑰“과음을 한 다음날 해장술을 마셔야 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1.05:1.15, ⑱“술을 마신 후에 좌절감을 느끼거나 후회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1.15:1.44, ⑲“술 마시고 필름이 끊긴 적이 얼마나 됩니까?” 1.15:1.45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보다 자살충동자가 알코올남용에 더 많이 노출되었다.

반면, 삶의 사다리의 구성요인에서는 ⑳“귀하는 지금 현재의 사다리의 몇 번째 칸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6.12:3.73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보다 자살충동자가 자신의 삶을 더 많이 비판하고 있었다.

3. 자살충동과 관련된 주요 예측변인들의 구성요인의 영향력 분석

자살충동과 관련된 주요 예측변인들의 구성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측변인들의 구성요인 간 다중공선성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측변인들의 구성요인 간 상관계수를 통해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모든 상관계수가 기준치($r < 0.85$) 이하로 나타나 예측변인들의 구성요인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73].

표 3. 자살충동과 관련된 예측변인들의 구성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예측변인	구성요인	자살충동		
		B	Exp(B)	p
상수항		-5.717	.003	.002
성역할	①	-.004	.996	.982
	②	-.268	.765	.179
	③	-.006	.994	.981
	④	.330	1.391	.041
	⑤	-.039	.962	.844
	⑥	.140	1.150	.436
	⑦	.255	1.291	.127
	⑧	-.017	.984	.933
	⑨	.439	1.550	.005
폭력행위	⑩	.108	1.114	.735
	⑪	-.286	.751	.615
	⑫	.575	1.776	.011
외로움	⑬	.781	2.184	.041
	⑭	.361	1.434	.422
	⑮	-.049	.952	.833
알코올남용	⑯	.037	1.038	.919
	⑰	-.313	.731	.365
	⑱	-.616	.540	.105
	⑲	.961	2.613	.004
삶의사다리	⑳	-.355	.701	.000

-2Log Likelihood Ratio $\chi^2 = 398.387^{***}$
 Cox & Shell $\chi^2 = .038$
 Nagelkerke $\chi^2 = .267$

[표 3]에서 자살충동에 관련된 예측변인들의 구성요인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은 Cox & Snell $R^2 = .038$, Nagelkerke $R^2 = .267$ 로 나타나 유의하였고(-2Log Likelihood Ratio $\chi^2 = 398.387$, $p < .001$), 모형적합도 또한 Hosmer-Lemeshow $\chi^2 = 21.326$ 로 나타나 유의수준 0.05에서 적합하였다. 자살충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의 구성요인의 회귀계수 값을 제시하는 모수 추정값은 성역할에서는 ④“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구성요인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 전통적인 가부장적 역할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자살충동의 승산비가 1.391배로 증가하였고($p < .05$), 폭력행위에서는 ⑨“모욕적이고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구성요인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 언어폭력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자살충동의 승산비가 1.550배로 증가하였고($p < .01$), 외로움에서는 ⑫“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구성요인과 ⑬“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구성요인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전자의 경우 외로움을 한 단위 더 느낄수록 자살충동의 승산비가 1.778배로 증가하였고($p < .05$), 후자의 경우 사람들이 자신을 한 단위 더 차갑게 되할수록 자살충동의 승산비가 2.184배로 증가하였다($p < .05$). 또한 알코올남용에서는 ⑰“술 마시고 필름이 끊긴 적이 얼마나 됩니까?” 구성요인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 음주 후 블랙아웃(black-out) 현상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자살충동의 승산비가 2.613배로 증가한 반면($p < .05$), 삶의 사다리에서는 ⑳“귀하는 지금 현재의 사다리의 몇 번째 칸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구성요인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자신의 삶의 사다리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의 승산비가 0.701배($1 - .701 = .299$, 29.9%) 감소하였다($p < .001$).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12차년도(2017년) 한국복지패널에 참여한 11,755명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자살충동과 관련된 주요 예측변인, 즉 성역할, 폭력행위, 외로움, 알코올남용 및 삶의 사다리 등의 구성요인의 영향력을 로지스틱 회귀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자살충동에 관련된 주요 예측변인들의 구성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첫째, 성역할에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역할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자살충동의 승산비가 1.391배로 증가하였고, 둘째, 폭력행위에서는 언어폭력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자살충동의 승산비가 1.550배로 증가하였고, 셋째, 외로움에서는 외로움을 한 단위 더 느낄수록 자살충동의 승산비가 1.778배로 증가

하였고, 사람들이 자신을 한 단위 더 차갑게 대할수록 자살충동의 승산비가 2.184배로 증가하였다. 넷째, 알코올남용에서는 음주 후 블랙아웃(black-out) 현상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자살충동의 승산비가 2.613배로 증가한 반면, 끝으로 삶의 사다리에서는 자신의 삶의 사다리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의 승산비가 0.701배 ($1-.701=.299$, 29.9%) 감소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도출된 사회복지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나친 전통적인 가부장적 성역할의 강요는 자신의 역할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거나 혹은 자신의 역할이 상실될 때 젠더정체감의 혼란으로 이어져 극심한 스트레스나 박탈감을 유발하여 좀 더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당할 수 있다[69]. 따라서 전통적 젠더양극화(gender polarization)[70]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개개인 모두가 주변 환경과의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삶의 방식이나 기회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에 보다 더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지향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다양성감수성프로그램이나 사회화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둘째, 최근 여성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사회로의 인식 변화로 인해 배우자폭력을 심각한 인권 침해 사각지대로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에도 배우자폭력의 심각성을 간과·방치·묵인하는 경향이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다[69]. 최근 배우자폭력과 관련된 연구는 신체적 학대보다 정서적 학대의 피해자는 자살충동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10] 심리적으로 더 황폐해 진다고 한다[71]. 따라서 폭력행위를 예방·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예방프로그램과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심리적 치료 상담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통합은 전 생애에 걸쳐 정서적 충족감과 발달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한다[59].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소속할 필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60] 대인관계의 부재 즉, 상호작용의 부재에 대한 부정적 정서인[72] 외로움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자살충동에도 밀접하게 연관된다[19-21], 따라서 개개인의 사회적 소속감이나 연대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의 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개인의 사회적 소속감이나 연대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의 사회적 자본의 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네트워크 구축프로그램이나 연대감증진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지나친 알코올남용은 통제불능, 충동 및 판단력 저하를 야기하여 자살에 이르게 할 수도 있지만, 자살행동과 관련된 고통을 덜어주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뿐만 아니라 정신병, 기분장애 및 불안장애 등 정신장애 또한 자살행동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음주패턴과도 상호작용하기도 한다고 한다[32]. 따라서 알코올남용 개입프로그램은 스트레스감수성프로그램과 통합·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맨 꼭대기(1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를, 맨 아래(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악의 상태를 나타내는 숫자가 매겨진 사다리로 측정된 삶의 사다리, 즉 심리적 삶의 질은 자살성과 관련된다고 한다[15]. 삶의 질은 낮추는데 상대적 빈곤과 사회적 배제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배제당하지 않도록 개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기대수준을 사회적 조건이나 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광범위한 목적에 의해 수집된 ‘한국복지패널’ 조사의 결과 중 일부를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선별하고 조작하여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일부 변인들의 범위가 불충분했고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점, 2차 자료분석이 갖는 불가피한 제약이 존재한다. 또한 이 연구는 횡단연구이므로 자살충동과 관련된 예측변인들의 구성요인의 영향력을 명확히 논하기는 어렵다. 이 연구에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드러난 자살충동과 관련된 예측변인들의 구성요인의 영향력은 시간에 따른 인과적 관계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측정된 각 변인들의 회귀적 관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여측변인의 구성요인의 영향력은 잠정적으로 지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일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은 추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다.

참 고 문 헌

- [1] 보건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여가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합동,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2018.1.23.
- [2] 남재일, “한국 신문의 자살보도의 담론적 성격,” *언론과학연구*, 제10권, 제3호, pp.191-224, 2010.
- [3] 김지훈, 김경호, “자살생각과 자살계획에 관련된 유발변인의 영향력 분석: 심리상태와 가족관련 변인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25권, 제4호, pp.246-272, 2013.
- [4] 이묘숙, “노인의 우울수준이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및 생활만족도 조절효과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49권, pp.241-266, 2010.
- [5] 이은석, 이선장, “농촌지역 노인의 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생각에 있어서 신체적 여가활동의 완충효과,”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제22권, 제2호, pp.35-54, 2009.
- [6] 배진희, “노인의 상실, 학대경험,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제44권, pp.49-70, 2009.
- [7] 김정란, 김혜신,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이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제34권, 제2호, pp.310-333, 2014.
- [8] A. Crosby, B. Han, L. Ortega, S. E. Park, and J. Gfroerer,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rs among adults aged 18+ years—United States, 2008 - 2009,”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Vol.60, No.13, pp.1-22, 2011.
- [9] K. Devries, C. Watts, M. Yoshihama, L. Kiss, L. B. Schraiber, N. Deyessa, L. Heise, J. Durand, J. Mbwanbo, H. Jansen, Y. Berhane, M. Ellsberg, and C. Garcia-Moreno, “Violence against women is strongly associated with suicide attempts: Evidence from the WHO multi-country study on women’s health and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Social Science & Medicine*, Vol.73, No.1, pp.79-86, 2011.
- [10] L. Eshelman and A. Levendosky, “Dating violence: Mental health consequences based on type of abuse,” *Violence & Victims*, Vol.27, No.2, pp.215-228, 2012.
- [11] J. L. Alhusen, N. Frohman, and G. Purcell.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suicidal ideation in pregnant women,” *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Vol.18, No.4, pp.573-578, 2015.
- [12] X. Dong, R. Chen, B. Wu, N. J. Zhang, A. C. Y. Mui, and I. Chi, “The association between elder mistreatment and suicidal ideation among community-dwelling chinese older adults in the u.s,” *Gerontology*, Vol.62, No.1, pp.71-80, 2015.
- [13] J. Zhang, Y. Lie, and L. Sun, “Life Satisfaction and Degree of Suicide Intent: A Test of The Strain Theory of Suicide,” *Comprehensive Psychiatry*, Vol.74, pp.1-8, 2017.
- [14] A. Case and A. Deaton, *Suicide, age, and wellbeing: An empirical investigation*, NBER Working Paper, No.21279, 2015.
- [15] T. Troister, M. P. Davis, A. Lowndes, and R. R. Holden, “A five-month longitudinal study of psychache and suicide ideation: Replication in general and high risk university students,” *Suicide Life Threat Behavior*, Vol.43, No.6, pp.611-619, 2013.
- [16] 김보미, 유성은, “대인관계 외상 경험자들의 사회적 유대감, 정서조절과 자살생각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3권, 제3호, pp.731-748, 2012.
- [17] 강초룡, 조영태, “사회적 차별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성·연령·경제상황에 따른 차별인지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35권, 제3호, pp.1-27, 2012.
- [18] 이묘숙,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은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0권, 제3호, pp.231-259, 2012.
- [19] A. Stravynski and R. Boyer, “Loneliness in relation to suicide ideation and para-suicide: A population-wide study,”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ur*, Vol.31, No.1,

- pp.32-40, 2001.
- [20] S. A. Kidd, "The walls are closing in, and we were trapped: A qualitative analysis of street youth suicide," *Youth and Society*, Vol.36, No.1, pp.30-55, 2004.
- [21] C. A. King and C. R. Merchant, "Social and interpersonal factors relating to adolescent suicidality: A review of the literature,"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Vol.12, No.3, pp.81-196, 2008.
- [22] M. M. Pervin and N. Ferdowshi, "Suicidal ideation in relation to depression, loneliness and hopelessn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Dhaka University, Journal of Biological Science*, Vol.25, No.1, pp.57-64, 2016.
- [23] L. W. Li, H. Xu, Z. Zhang, and J. Liu, "An ecological study of social fragmentation, socioeconomic deprivation, and suicide in rural china: 2008-2010," *SSM-Population Health*, Vol.2, pp.365-372, 2016.
- [24] N. D. L. Smith and I. Kawachi, "State-level social capital and suicide mortality in the 50 U. S. States," *Social Science & Medicine*, Vol.120, pp.269-277, 2014.
- [25] V. Lorant, A. E. Kunst, M. Huisman, M. Bopp, J. Mackenbach, and The Working Group, "A european comparative study of marital status and socio-Economic inequality in suicide," *Social Science & Medicine*, Vol.60, pp.2431-2441, 2005.
- [26] M. Strobe, W. Strobe, and G. Abakoukin, "The broken heart: Suicidal ideation in bereavement,"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62, No.11, pp.2178-218, 2005.
- [27] S. U. Lee, S. W. Roh, Y. E. Kim, J. I. Park, B. Y. Jeon, and I. H. Oh, "Impact of disability status on suicide risks in south korea: Analysi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hort data from 2003 to 2013," *Disability and Health Journal*, Vol.10, No.1, pp.123-130, 2017.
- [28] A. Cleary, "Suicidal action, emotional expression, and the performance of masculinities," *Social Science & Medicine*, Vol.74, No.4, pp.498-505, 2012.
- [29] D. Coleman, "Traditional masculinity as a risk factor for suicidal ideation: Cross-sectional and prospective evidence from a study of young adults," *Journal of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Vol.19, No.3, pp.366-384, 2015.
- [30] J. Pirkis, M. J. Spiial, L. Keogh, T. Mousaferiadis, and D. Currier, "Masculinity and suicidal thinking,"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Vol.52, No.3, pp.319-327, 2017.
- [31] 윤명숙, "알코올중독자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음주의 조절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38권, pp.113-140, 2011.
- [32] M. Pompili, G. Serafini, M. Innamorati, G. Dominici, S. Ferracuti, G. D. Kotzalidis, G. Serris, P. Girardi, L. Janiri, R. Tatarelli, L. Sher, and D. Lester, "Suicidal behavior and alcohol abus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7, pp.1392-1431, 2010.
- [33] W. C. Kerr, M. S. Kaplan, N. Huguest, R. Caetano, N. Giesbrecht, and B. H. McFarland, "Economic recession, alcohol, and suicide rates: Comparative effects of poverty, foreclosure, and job los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Vol.52, No.4, pp.469-475, 2017.
- [34] 강준혁, 이혁구, 이근무, "자살관념 극복에 관한 연구: 자살 고위험집단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5권, 제3호, pp.103-134, 2015.
- [35] 배지연, "노인자살에 관한 사례분석: 신문기사 내 용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23권, pp.65-82, 2004.

- [36] Y. Gvion and A. Apter, "Aggression, impulsivity, and suicide behavior: A review of the literature,"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Vol.15, No.2, pp.93-112, 2011.
- [37] I. Orbach, M. Mikulincer, P. Sirota, and E. Gilboa-Schechtman, "Mental pain: A multidimensional operationalization and definition," *Suicide Life Threat Behavior*, Vol.33, No.3, pp.219-30, 2003.
- [38] K. A. Van Orden, T. K. Witte, L. M. James, Y. Castro, K. H. Gordon, S. R. Braithwaite, D. L. Holler, and T. E. Joiner,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varies across semesters: The mediating role of belongingness," *Suicide Life Threat Behavior*, Vol.38, No.4, pp.427-35, 2008.
- [39] H. Hendin, Recognizing a suicide crisis in psychiatric patients, In Wasserman D, & Wasserman C, editors, *Oxford Textbook of Suicide Prevention, A Global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pp.327-31, 2009.
- [40] E. D. Klonsky and A. M. May, "Differentiating suicide attempters from suicide ideators: A critical frontier for suicidology research,"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44, No.1, pp.1-5, 2014.
- [41] T. W. Bender, K. H. Gordon, K. Bresin, and T. E. Joiner, "Impulsivity and suicidality: The mediating role of painful and provocative experienc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129, No.1-2, pp.301-307, 2011.
- [42] S. P. Whiteside and D. R. Lynam, "The five factor model and impulsivity: Using a structural model of personality to understand impulsiv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30, No.4, pp.669-689, 2001.
- [43] S. M. Alessi and N. M. Petry, "Pathological gambling severity is associated with impulsivity in a delay discounting procedure," *Behavioral Processes*, Vol.64, No.3, pp.345-354, 2003.
- [44] P. Baud, "Personality traits as intermediary phenotypes in suicidal behavior: Genetic issues," *American Journal of Medical Genetics Part C*, Vol.133(c), No.1, pp.34-42, 2005.
- [45] S. B. Mee, B. G. Bunney, W. F. Hetrick, S. G. Potkin, and C. Reisl, "Assessment of psychological pain in major depressive episode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Vol.45, No.11, pp.1504-1510, 2011.
- [46] Y. Levi-Belz, Y. Gvion, N. Horesh, T. Fischel, I. Treves, E. Or, O. Stein-Reisner, M. Weiser, H. S. David, and A. Apter, "Mental pain, communication difficulties, and medically serious suicide attempts: A case-control study,"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Vol.18, No.1, pp.74-87, 2014.
- [47] M. T. Berlin, B. S. Mattevi, D. P. Pavanello, M. A. Caldieraro, M. P. A. Fleck, L. R. Wingate, and T. E. Joiner, "Psychache and suicidality in adult mood disordered outpatients in Brazil," *Suicide Life Threat Behavior*, Vol.33, No.3, pp.242-248, 2001.
- [48] L. C. Konick and P. M. Gutierrez, "Testing a model of suicide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Suicide Life Threat Behavior*, Vol.35, No.2, pp.181-192, 2005.
- [49] Y. Levi, N. Horesh, T. Fischel, I. Treves, E. Or, and A. Apte, "Mental pain and its communication in medically serious suicide attempts: An impossible situat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111, No.2-3, pp.244-250, 2008.
- [50] J. Frattaroli, "Experimental disclosure and its moderators: A metaanalysis," *Psychol Bull*, Vol.132, No.6, pp.823-865, 2006.
- [51] N. Horesh, G. Zalsman, and A. Apter, "Suicidal behavior and self-disclosure in adolescent

- psychiatric inpatient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Vol.192, No.12, pp.837-842, 2004.
- [52] L. S. Barnes, R. M. Ikeda, and M. Kresnow, “Help-seeking behavior prior to nearly lethal suicide attempts,” *Suicide Life Threat Behavior*, Vol.32, No.1, pp.68-75, 2001.
- [53] World Health Organization, *Preventing suicide: A global imperative*,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2014.
- [54] D. L. Best and J. E. Williams, Gender and culture, In D. Matsumoto(Ed.), *The handbook of culture and psycholog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pp.195-222, 2001.
- [55] K. Kendler, L. Thornton, and C. Prescott, “Gender differences in the rates of exposure to stressful life events and sensitivity to their depressogenic effec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58, No.4, pp.587-593, 2001.
- [56] I. Niehaus, “Gendered endings: Narratives of male and female suicides in the South African Lowveld,” *Culture, Medicine, and Psychiatry*, Vol.36, No.2, pp.327-347, 2012.
- [57] 조홍식, 김혜련, 신혜섭, 김혜란, *여성복지학*, 학지사: 서울, 2000.
- [58] D. S. Eitzen and M. B. Zinn, “The missing safety net and families: A progressive critique of the new welfare legislation,”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Vol.27, No.1, pp.53-73, 2000.
- [59] M. E. Beutel, E. M. Klein, E. Brähler, I. Reiner, C. Jünger, M. Michal, J. Wiltink, P. S. Wild, T. Münzel, K. J. Lackner, and A. N. TibubosEmai, “Loneliness in the general population: Prevalence, determinants and relations to mental health,” *BMC Psychiatry*, Vol.17, No.1, pp.1-7, 2017.
- [60] R. F. Baumeister and M. R. Leary,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 Bull.* Vol.117, No.3, p.497, 1995.
- [61] D. H. Silvera and C. R. Seger, “Feeling good about ourselves: Unrealistic self-evaluations and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in the United States and Norwa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35, No.5, pp.571-585, 2004.
- [62] D. Mellor, M. Stokes, L. Firth, Y. Hayashi, and R. Cummins, “Need for belong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loneliness, and life satisfa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45, No.3, pp.213-218, 2008.
- [63] L. Andersson, “Loneliness research and interventions: A review of the literature,” *Aging and Mental Health*, Vol.2, No.4, pp.264-274, 1998.
- [64] R. Mushtaq, S. Shoib, T. Shah, and S. Mushta,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psychiatric disorders and physical health? A review on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loneliness,” *Journal of Clinical and Diagnostic Research*, Vol.8, No.9, pp.1-4, 2014.
- [65] D. Perlman, “European and canadian studies of loneliness among seniors,” *Canadian Journal on Aging*, Vol.23, No.2, pp.181-188, 2004.
- [66] L. C. Hawkey and J. P. Capitano, “Perceived social isolation, evolutionary fitness and health outcomes: A lifespan approach,” *Philosophical Transaction of The Royal Society B*, Vol.370, No.1669, 2015.
- [67] A. M. H. Eisses, H. Kluiters, K. Jongenelis, A. M. Pot, A. T. F. Beekman, and J. Ormel, “Risk indicators of depression in residential homes,”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Vol.19, No.7, pp.634-640, 2004.
- [68] H. Cantril, *The pattern of human concern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1965.
- [69] 김지훈, 김경호, “베이비부머의 가족갈등대처전

략이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 문제음주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8호, pp.448-461, 2013.

- [70] D. J. Bem, “Exotic become erotic: A developmental theory of sexual orientation,” *Psychological Review*, Vol.103, No.2, pp.320-335, 1996.
- [71] D. L. Snow, T. P. Sullivan, S. C. Swan, D. C. Tate, and I. Klein, “The role of coping and problem drinking in men’s abuse of female partners: Test of a path model,” *Violence and Victims*, Vol.21, No.3, pp.267-286, 2006.
- [72] V. Tzouvara, C. Papadopoulos, and G. Randhawa, “A narrative review of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loneliness,” *British Journal of Community Nursing*, Vol.20, No.7, pp.329-334, 2015.
- [73] 김지훈, 강욱모, 문수열, “베이비부머의 사회적 자본 인식과 사회적 자본 형성간의 관계분석: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40권, 제3호, pp.25-50, 2013.

저 자 소 개

김 지 훈(Jihoon Kim)

정회원



- 2009년 2월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2년 8월 :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가족복지, 노인복지

김 경 호(Kyoungho Kim)

정회원



- 1986년 2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행정학석사)
- 1997년 2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행정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노인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